

지역 소식통

전북장애인복지협, 고창 선운산서 걷기대회 열어

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협회(회장 이명재)가 주최하고 고창군 장애인복지관(관장 정종만)이 주관한 걷기대회가 지난 14일 고창군 선운산에서 전북도내 13개 장애인복지관 이용인 등 3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이번 걷기대회는 전라북도 13개 시·군 장애인복지관 연합 사업으로 매년 개최되었으나 코로나19로 2019년 이후 3년 만에 개최됐다.

시·군 장애인들의 화합과 우정을 나누고 장애 인식개선을 목적으로 개최되는 이번 대회는 '선운산을 걷고 보고 느끼고'라는 주제로 실시됐다. 행사 중에 갯벌 세계자연유산 보전본부의 고창군 유치를 희망하는 퍼포먼스도 진행됐다.

정종만 관장은 "도내 13개 장애인복지관이 3년 만에 한자리에 모여 함께 교류하고 화합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었다"라며 "도와주시 전라북도 13개 시·군 복지관협회 회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군의회, 하반기 역량강화 워크숍 실시

부안군의회(의장 김광수)가 9대 개원 이후 처음으로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2박 3일의 일정으로 울산광역시 및 경상북도 포항 일원에서 2022년 하반기 역량강화 워크숍을 실시했다.

이번 워크숍은 의정활동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지식 습득 및 선진시설 벤치마킹을 통해 더 나은 부안군 발전의 초석을 다짐과 동시에 다가오는 행정사무감사와 2023년 예산 심의를 대비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워크숍 기간동안 의원들은 박광호 교수로부터 '의원이 숙지할 기본적인 사항과 행정사무감사 기법'을 비롯해 우지영 박사로부터 '2023년도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 기법' 등 총 9시간의 다양한 구성으로 이루어진 강의를 들으며 다가오는 제2차 정례회를 대비하며 전문성을 습득하는 시간을 가졌다.

/부안=김석진 기자

농촌인력난 해소 '청신호'

이학수 정읍시장-베트남 람동성 부인민위원장, 계절근로자 도입 협약

이학수 정읍시장과 베트남 람동성 팜에스 부인민위원장이 지난 13일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서에 서명했다.

고경운 정읍시의회의장 등 시 대표단과 함께 베트남을 방문하고 있는 이 시장은 이날 람동성 노동보훈사회국과 계절근로자 도입에 관한 MOU를 체결했다.

이 시장은 취업 초부터 코로나19 장기화와 저출생 고령화, 인구 유출 등에 따른 농촌 인구감소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지역 농가를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확보에 온 힘을 쏟아 오고 있다.

이 시장은 "정읍 농촌지역에 이르면 내년부터 베트남 계절근로자가 투입돼 일손 부족 문제가 다소 해소될 전망이다"이라며 "향후 더욱 다양한 농업 협력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협약식에서 이학수 시장과 람동성



팜에스 부인민위원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선발과 파견 등 근로조건 전반에 대한 세부 사항을 협의했다.

이번 협약은 베트남 람동성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협약에 따라 이르면 내년부터 정읍 농촌지역에 베트남 계절근로자가 투입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시기와 인원 등 세부 사항은 추후 별도 협의를 거쳐 정할 계획이다.

앞으로 베트남 람동성은 계절근로자로 일하는 근로자의 건강과 업무 협력 태도, 양국 법률 규정 조건에 적합한 근로자를 선발한다. 또, 근로자 출국 전 사전교육과 훈련 등을 지원할 예정

이다.

시는 계절근로자로 일하는 베트남 농업인의 거주 문제와 최저임금 지급 등의 근무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 고용을 희망하는 지역 농가를 대상으로 이달 안으로 수요조사 후 오는 12월 인원 확정 등 법무부의 승인을 받아 내년 상반기부터 입국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농가 배치 전 교육을 진행하는 한편, 배치 후 지속적인 계절근로자 모니터링과 농가 현장 점검 등을 통해 무단 이탈 방지는 물론 인권 보호 등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한편,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번기 고질적인 일손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5개월까지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다. 이는 농·어촌 지역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다양한 가족 맞춤형 서비스'

'정읍시 가족센터', 민간 위탁운영 기관 공개모집

정읍시가 '정읍시 가족센터'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위탁운영 기관을 공개모집 한다.

'정읍시 가족센터'는 건강가정기본법 및 다문화가족 기본법에 근거해 가족의 유형에 상관없이 다양한 가족에 대한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족복지 서비스 전문기관이다.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생활 지원을 비롯해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 등 다양한 가족 형태에 맞는 교육과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정읍시 가족센터' 위탁운영 신청서 접수 기간은 오는 24일부터 28일까지 5일간이다.

신청 자격은 민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건강가정사업 또는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비영리법인,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3호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의한 공익법인, 비영리 민간단체지 원법 제2조에 의한 건강가정사업 또는 다문화가족지원 관련 비영리단체, 협 동조합 기본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이다.

위탁운영을 희망하는 법인이 단체는 기간 내 신청서류를 갖춰 정읍시청 여성가족과(063-539-5558)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위탁 기관으로 선정되면 2023년 1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5년간 가족센터 운영 전반을 맡게된다. 자세한 내용은 정읍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가족 형태가 다양해짐에 따라 건강한 가정과 다문화가족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가족의 삶의 질을 높여줄 다양한 사업을 펼쳐주실 전문적이고 역량 있는 법인·단체들의 많은 신청 바란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공인중개사 '명찰제' 시행... 불법 중개 근절

책임감 있는 중개로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 기대

정읍시가 시민들이 공인중개사 자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부동산중개사 명찰제'를 전면 시행한다.

부동산중개사 명찰제는 무등록·무자격 중개업자의 중개행위와 자격증·등록증 대여행위, 타인의 공인중개사 이름을 사용하는 중개행위, 중개보조원의 실질적인 중개행위 등 위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를 통해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등록증 대여행위가 빈번히 발생하는 문제 해결을 통해 중개업자 간 공

정한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는 계획이다.

관련해 시는 정읍시에 등록된 공인중개사임을 증명하는 신분증을 제작, 지역 내 76개소 중개업소를 방문해 배부했다.

명찰에는 공인중개사의 성명과 사진, 중개업소 명칭, 등록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다. 명찰은 공인중개사 소속 공인중개사, 부동산 중개인 등 중개행위가 가능한 대상만 패용할 수 있다. 중

개행위가 불가능한 중개보조원은 명찰 패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시는 이번 명찰제 시행으로 그동안 개업공인중개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무실에 게시된 등록증과 자격증을 일일이 확인하는 불편이 다소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공인중개사 명찰 패용으로 시민들은 무등록자의 중개 사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고, 공인중개사는 시민들에게 책임감 있는 중개행위를 함으로써 투명한 부동산 거래 정착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 국민권익위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

부안군은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지역주민의 고충 해소를 위한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오는 21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부안군청 5층 대회의실에서 운영한다고 밝혔다.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업기관 관계자로 구성된 상담반이 지역주민을 찾아가 현장 상담을 통해 고충민원을 해결하는 현장민원 상담 제도이다.

고충노동부와 대한법률구조공단, 서민금융진흥원, 한국국토정보공사, 한 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소비자원 등 7개 협업기관이 함께 참여해 노동관계, 법률, 지적(地籍) 분쟁, 사회복지, 소비자피해 등 다양한 생활 속 고충을

상담한다.

상담 중 해결이 가능한 고충이나 문의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해소하고 추 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사항은 고충민 원으로 접수해 정밀조사 과정을 거쳐 처리된다.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오는 20일까지 신청서 접수신청서 작성해 제출하면 순서에 따라 상담받을 수 있으며 사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오는 21일 현장에서 신청해 상담받을 수 있다.

특히 이번 상담은 부안군민뿐만 아 니라 고창군민도 참여할 수 있다.

/부안=김석진 기자

노형수 고창 부군수, MZ세대 공무원과 소통의 장 열어

노형수 고창군 부군수가 13일 고창읍 한 레스토랑에서 MZ세대(1980년대 후반~2000년대 초 출생) 공무원들과 소통의 기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지역 갈등, 젠더 갈등, 빈부 갈등과 같은 사회적 갈등과 더불어 가장 심각한 갈등 중 하나인 기성세대와 MZ세대의 갈등을 해소하고 화합하는 직장문화를 만들기 위해 열렸다.

노형수 부군수와 신규 공무원들은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대화를 시작해 상급자외의 소통문제 등 각자의 애로 사항을 경험하고 해결방안에 대해 다

양한 의견을 내었다.

또한 민선8기 고창군 비전, 군정 주요사업들에 대한 현실진단과 개선책에 대해서도 심도깊은 대화를 나눴다.

노형수 부군수는 "젊은 세대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고창군의 큰 활력이 될 것이라 믿는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을 이어가고 구성원간 신뢰와 존중이 가능한 직장문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농기센터,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성료

부안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는 귀농인의 안정적인 농촌정착을 돕기 위해 실시한 '2022년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부터 7개월 동안 진행된 이번 교육은 신규농업인파 선도농가가 작목별 매칭으로 한 개의 팀을 구성해 총 6개팀으로 진행했다.

신규농업인은 선도농가로부터 작목에 대한 배배기술부터 수확, 선별, 판매 농촌생활 노하우 등을 배울 수 있는 과정으로 진행됐으며 귀농·귀촌

농가 현장에서 영농실습을 했다.

교육에 참여한 신규농업인 송민주 씨는 "귀농을 결심하고 들어와 아무것도 모르고 1년을 보냈지만 선도농가에 영농정보와 농촌생활에서의 삶의 지혜 등을 배워 초기에 겪을 수 있는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었다"며 "이 경험을 바탕으로 성공적인 귀농귀촌 생활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혜란 부안농업기술센터소장은 "작목별 선도농업인들의 일대일 멘토링을 통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과정으로 진행됐으며 귀농·귀촌

/부안=김석진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아동학대 신고번호
112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 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